One pick 위클리 핫이슈

트와이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트와이스·투모로우바이투게더 컴백 케이팝 선후배간 오늘 빅매치 선사

케이팝 선후배간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걸그룹 트와이스와 아이돌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같은 날 컴백한다. 이들은 26일 각각 새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케이팝을 대표해 해외에서도 활동 보폭을 넓혀가는 이들이기에 해외 팬들의 관심도 뜨겁다.

트와이스는 이날 두 번째 정규 앨범 '아이즈 와이드 오픈'을 선보이고, 오후 8시 컴백기념 스페셜 라이브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신곡 '아이 캔트 스톱 미'(I CAN'T STOP ME) 무대를 전 세계에 처음 공개한다. 멤버들은 앨범 작업과정과 근황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미니음반 '미니소드1: 블루아워'를 공개한다. 앨범마다 독특한 콘셉트를 선보여 왔던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완전히 달라진 오늘을 사는 10대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타이틀곡인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을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최강창민 25일 비공개 결혼식

최강창민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심창민·32)이 25일 결혼했다. 최강창민은 이날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당초 지난달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다. 최강창민은 6월 공식 팬클럽 커뮤니티를 통해 "(여자친구와)믿음과 신뢰를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자연스레 이 사람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황 나훈아, 가수 브랜드평판 1위

'가황' 나훈아가 10월 가수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25일 발표한 관련 순위에 따르면 나훈아는 그룹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해당 순위는 9월24일부터 10월24일까지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억6891만여건에 대해 소비자 브랜드 참여, 미디어, 소통 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다. 나훈아는 9월30일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으로 화제에 올랐다. 3위에는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이름을 올렸다.

연기자 김민종, 24일 모친상

가수 겸 연기자 김민종이 모친상을 당했다. 25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민종의 모친은 24일 밤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소속사 관계자는 "장례는 가족 및 친지들과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27일이다. 김민종은 지난해 SBS 드라마 '배가본드'를 마치고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최근 KBS 2TV 예능프로그램 '전교톱10'에 출연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보니…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를 뚫고 21일 개막했다. 발열 점검, 전자출입명부, 띄어 앉기 등 철저한 방역 아래 영화 관람에 집중했다. 사진은 관객들이 두세 칸씩 띄어 앉아있는 영화 '미나리'의 무대인사(왼쪽)와 '사라진 시간'의 관객과의 대화(GV) 현장.
부산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사진제공 | 부산국제영화제

BIFF 거리는 한산해도 극장은 뜨거웠다

초청작 192편…편당 1회만 상영
스크린 별들, 관객과 온라인 Q&A
"되레 쾌적하고 안전하게 영화 봐"

토요일인 24일 오후 너른 광장에는 사람 왕래 없이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왔다. 평소 주말의 여유로움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대던 광장은 사방에 둘러 처진 바리케이드로 을씨년스러웠다. 입구에선 방역요원들이 발열 점검,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 등을 안내했다. 예년 같으면 관객으로 가득했을 공간, 감염병 확산 여파 속에서 21일 막을 올린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30일까지 5개 스크린에서 68개국 192편의 초청작을 편당 단 1회만 상영하는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안팎의 풍경이다.

● "오히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부산국제영화제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행사 없이 오로지 영화만을 상영한다. 해외 영화관계자 초청을 취소하고, 취재진에게는 프레스카드 대신 일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 24일 기자 출입증의 출입 허가일이 전날임을 확인한 방역요원은 안내데스크에까지 따라와 재발급 과정을 지켜본 뒤 바코드를 입력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치밀한 노력이다.

힘차게 나부끼던 영화제 깃발도 올해는 보이지 않는 광장. 열기는 대신 극장에서 피어올랐다. 배우 정진영의 감독 데뷔작 '사라진 시간'이 이날 오후 1시 상영된 영화의전당 중극장. 각 상영관 좌석의 25%만 온라인 예매를 진행해 전석 400석의 100석이 채워졌다.

관객들은 상영 직후 진지한 표정으로 감독에게 "시원하게 해설해 달라" "조진웅을 캐스팅한 이유가 뭐냐"는 등 영화에 관해 물었다. 관객은 온라인 'Q&A 페이지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리고 무대 위 감독이 이에 답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세 편의 상영작을 예매해 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직장인 유소진(28)씨는 "많은 국내외 영화제가 취소되는 상황에 방역을 앞세워 작게라도 개최해 다행이다"면서 "오히려 쾌적하고 안전하게 영화를 볼 수 있어 색다르다"고 덧붙였다.

● 스타들의 동참 속 25살 청년의 새 다짐

관객 열기에 스타들도 화답하고 있다. 초청작 '미나리'의 윤여정·한예리, '사냥의 시간' 이제훈 등이 23일과 24일 직접 관객을 만났다. 일본 가와세 나오미·미국 프레데릭 와이즈먼 등 해외 감독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인사했다. 김혜수·주지훈·강하늘 등과 일본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마츠시게 유타카 등 스타들은 25일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이 아시아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콘텐츠어워즈 온라인 시상식에 참여했다. 차승재 운영위원장은 "각 후보들이 편하게 온라인으로 대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했다.

영화제는 관객 만남의 공간도 확장했다. 21일 베트남영화 '은밀한'과 태국영화 '스쿨 타운 래퍼'를 부산과 현지에서 동시 상영하고 각각 대화 자리를 열었다. 부산을 찾지 못한 해외 관객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무대였다.

24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감염병 확산 여파와 빠듯한 예산 속에 오프라인 무대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영화의전당 인근 APEC 나루공원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부산시와 함께 '영화의 숲'을 조성하는 마당에서 배우 유준상·최서희, '해운대' 윤제균 감독도 나무에 이름을 내걸었다. 내년에도 또 다른 스타들이 나무를 심는다. 이 이사장은 "(감염병 사태에)관객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말했다.

부산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베일 벗은 '미나리', 화제작답게 매진 행렬

70여 매체 대상 온라인 기자회견
외신들 "아카데미상 후보작" 극찬

윤여정

한예리

윤여정, 한예리, 스티븐 연이 주연한 미국영화 '미나리'가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최대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호평은 전 석 매진으로 입증됐고, 외신은 아카데미상 후보를 예측했다.

'미나리'는 이번 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섹션에서 관객을 만났다. 23일 오후 8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했다. 거장의 신작 또는 화제작을 소개하는 섹션 초청작답게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600여 관객은 탄탄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열연에 호응했다.

윤여정과 한예리는 이날 오후 2시 영화의전당 스튜디오에서 국내외 70여 매체 취재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출자 정이삭(리 아이작 정) 감독, '버닝'으로 낯익은 한국계 미국배우 스티븐 연은 미국 LA에서 나섰다. 회견을 마친 윤여정은 "너무 이상하다. 대면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스티븐 연은 낮 12시 기술 리허설에서 화상에 기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관계자들에게 "기자들은 어디 있느냐"며 신선한 경험에 반응했다.

영화는 희망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한국 가족의 삶을 그렸다. 올해 미국 선댄스영화제 드라마틱 경쟁부문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 등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영화전문지 버라이어티 등 외신들은 배우들이 내년도 아카데미상을 노리고 있다고 썼다. 버라이어티는 24일 "이들은 선댄스영화제 등에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내년 아카데미상 후보로 지명되면 한국은 물론 아시아권 최초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여정은 "후보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건데 축하를 받아 참 곤란하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영화는 전년도 개봉작에 한해 후보 자격을 주는 아카데미상 규정상 올해 안에 현지 개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윤여수 기자

'탈 막장' 이유진·김순옥 작가, 흥행도 잡을까

'불새 2020', 새로운 유형 아침드라마
'펜트하우스', 부동산·교육열 등 소재

불새 2020

펜트하우스

'탈(脫) 막장'을 선언한 두 히트 작가가 26일 나란히 새 작품으로 안방극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라는 명대사를 남긴 '불새'의 원작자 이유진 작가가 대본을 집필하는 SBS 새 아침드라마 '불새 2020'과 2014년 '왔다! 장보리' 등 '막장의 대모'로 불리는 김순옥 작가의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다. 각각 변화와 파격을 추구해 '막장'에 관한 시청자 편견을 깬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불새 2020'은 자극적인 소재와 전개가 두드러지는 여는 아침드라마와 달리 "감성적 연출"에 초점을 맞춘다. 26부작 미니시리즈를 120부작으로 늘리면서 새 등장인물과 에피소드를 추가했지만, 멜로드라마인 원작의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한다. 김재홍 제작PD는 "'막장'을 탈피한 새로운 유형의 아침드라마를 기획해보자는 제작진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매회 30분가량의 짧은 분량에 속도감을 살리고 미스터리 요소를 곳곳에 집어넣어 신선한 매력을 노린다.

'펜트하우스'는 "파격적 전개"에 방점을 찍는다. '왔다! 장보리' 등 히트작마다 인간의 강렬한 욕망을 담아왔던 김순옥 작가는 이번엔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교육열을 소재 삼는다. 때로 황당하지만 높은 흡인력을 자랑하는 김 작가와 작년 '황후의 품격'으로 화제몰이를 한 연출자 주동민 PD가 다시 손잡았다.

이지아, 김소연, 유진 등 연기자들도 입을 모아 "예상을 모두 빗겨가는 이야기"를 내세운다. 이들도 저마다 도전을 감행한다. 김소연은 2000년 MBC '이브의 모든 것' 이후 20년 만에 악역을 소화한다. 5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유진은 "그동안 주로 맡았던 착하고 굳센 '캔디'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욕망을 표출하는 인물을 처음으로 연기해 낯설고 새롭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